

❖ 한국화이자빌딩  
- 미화팀 이흥범 팀장님

이흥범 팀장님은 2008년 2월 입사 후 7년여 년간 근무하면서 불평불만 하나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화이자 임원 분께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화분이 죽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승진기념 선물이라며 사준 건데 바빠 관리를 못해 죽어가요. 어떡하죠?"라며 울먹거리는 고객께 이흥범 팀장님은 "제가 가져가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화분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죽어가던 화분을 살려서 전해드리러 올라갔더니 임원 분께서 살아난 화분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며 연신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소장인 저도 잊고 있었는데 고객과 한 약속을 잊지 않고 묵묵히 해낸 우리 이흥범 팀장님 최고입니다!

- 한국화이자빌딩 소장 우성희 -



**당신은 성원의 자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각각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  
그 바람같은 마음을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렵고, 훌륭한 일입니다  
1등 기업 성원이 이흥범 팀장님을 응원합니다!

성원개발(주) 자산관리본부 CRM

